

뱅크샐러드 (BankSalad)

1. 회사 개요 및 소개

뱅크샐러드는 개인 자산관리(PFM: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) 및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로 유명한 핀테크 기업입니다. 2012년 6월 김태훈 대표에 의해 설립된 (주)레이니스트가 뱅크샐러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, 현재는 회사명도 서비스명과 동일하게 **뱅크샐러드**로 통용되고 있습니다. 뱅크샐러드는 사용자 관점에서 디자인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**“Empowering People with Data”**, 즉 데이터로 개인의 더 나은 삶을 돕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금융을 시작으로 건강, 통신, 자동차 등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하여 초개인화된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것이 뱅크샐러드의 지향점입니다.

서비스의 출발은 **개인 맞춤형 카드 추천**이었습니다. 2014년 8월, 레이니스트는 소수의 팀원(6명)으로 **뱅크샐러드 웹서비스**를 첫 출시하여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신용카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. 이후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2017년 8월 **뱅크샐러드 모바일 앱 3.0**을 런칭했는데, 이 버전에서는 가계부 기능을 강화하고 UX를 개선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특별한 마케팅 없이 **입소문만으로 출시 1년 만에 200만 다운로드**를 달성할 정도로 빠르게 사용자층이 확산되었습니다.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**은행, 카드, 증권, 보험 등 흩어진 금융자산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한 국내 최초의 서비스**였다는 점입니다.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다수 은행 계좌 잔액, 카드 사용내역, 투자 현황, 보험 가입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었고, 자동으로 지출을 분류해주는 **스마트 가계부** 기능으로 편리하게 소비 습관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.

뱅크샐러드의 핵심 가치 제안은 **“내 돈을 한눈에, 한곳에서”** 관리하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. 이를 위해 금융기관 200여 곳의 1만여 개 금융상품 데이터를 연동하고, 2018년 오픈뱅킹 등 정책변화를 계기로 더욱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. 2019년 8월에는 **시리즈 C 투자 유치**와 함께 “PFM 서비스를 넘어 데이터 회사로서의 본질적 가치 입증”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, 이는 뱅크샐러드가 단순한 가계부 앱을 넘어 **데이터 플랫폼 기업**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. 이러한 비전 하에 회사는 **마이데이터 사업**을 적극

준비하였고, 2021 년 1 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 1 차 교부 대상에 포함되어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. 이로써뱅크샐러드는 국내 금융 분야에서 **가장 먼저 MyData 서비스를 구축한 선구자**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.

마이데이터 허가 이후 뱅크샐러드는 기존 금융 데이터 뿐 아니라 **건강, 생활 데이터**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대표적인 예가 **건강검진 데이터 기반 보험추천** 기능입니다. 사용자가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앱에 업로드하거나 연동하면, 이를 분석하여 잠재 질병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이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**중립적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보험 조합**을 찾아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습니다. 또한 2021 년에는 유전자 검사 스타트업과 제휴하여 **DTC 유전자 검사** 서비스를 도입했고, 1 년 만에 누적 검사자 수 20 만 명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. 2023 년 5 월에는 **장내 미생물 검사 서비스**도 출시하여, 사용자의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분석하고 건강 개선에 활용하는 영역까지 진출했습니다. 이런 건강 데이터까지 결합한 행보는 뱅크샐러드가 지향하는 **“개인의 삶 전반을 관리하는 플랫폼”**으로의 확장을 보여줍니다.

서비스 이름 **뱅크샐러드(BankSalad)**는 말 그대로 여러 금융정보를 한 그릇에 버무린 샐러드처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. 사용자는 앱 하나로 은행잔고, 카드결제, 투자성과, 보험만기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, 뱅크샐러드는 이러한 데이터를 **AI 기반 엔진**으로 분석해 개인화된 금융 조언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, **30,000 여 개에 달하는 카드 혜택 데이터를 분석**하여 각 개인에게 가장 혜택이 큰 카드를 추천하고, **개인 소비패턴**에 따른 예산 관리 팁을 주며, **여윳돈 투자 안내** 등도 해줍니다. 이밖에 **자동차나 부동산 자산 관리, 세금 리마인드** 등의 기능도 지속 추가되어, 가계 재정 전반을 케어해주는 종합 재무비서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

회사 문화 측면에서는, 뱅크샐러드는 **“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한다”**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서비스 디자인과 정책을 결정합니다. 복잡한 금융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고, 어려운 용어 대신 친숙한 언어로 풀어내는 등 UX/UI 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또한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로서 **보안과 개인정보 보호**를 중시하며, 업계 최고 수준의 암호화와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직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(금융, 데이터사이언스,

개발, 디자인 등)으로 구성되어 있고, "데이터로 세상을 바꾸자"는 비전에 공감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

요약하자면,뱅크샐러드는 **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통합 자산관리 핀테크**로, 201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**개인재무관리 앱의 대명사**로 자리잡았습니다.

2021년 초 누적 다운로드 1,000만 건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시리즈 D 투자 유치와 함께 기업가치 6,000억 원을 인정받는 등 외형적 성장도 두드러집니다.

이제 뱅크샐러드는 **금융 데이터+α(알파)** 전략으로 건강, 라이프스타일 분야까지 아우르는 생활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, "**모든 사람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 똑똑해지는 세상**"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실행해가고 있습니다.